

보도자료

스티븐 시어러 Steven Shearer

Wools and Effigies

전시기간: 2025년 9월 2일(화) – 9월 27일(토)

오프닝 리셉션: 2025년 9월 1일(월) 4 – 7 pm

갤러리 에바 프레젠후버 x P21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 74

운영시간: 화요일 – 금요일: 11 am – 6 pm, 토요일: 12 – 6 pm

갤러리 에바 프레젠후버(Galerie Eva Presenhuber)는 캐나다 작가 스티븐 시어러(Steven Shearer)의 여덟 번째 개인전 <Wools and Effigies>(양모와 형상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갤러리스트 에바 프레젠후버와 최수연 대표의 다섯 번째 협업이다.

<Wools and Effigies>전은 드로잉, 회화, 프린트를 통한 인물화에 대한 색다른 접근으로 유기적인 흐름을 엮어낸다. 전시 제목은 시어러의 대표작인 Archive 의 잡동사니 수집 같은 속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양모 공예품이나 골동품을 취급하는 이색적인 상점을 연상시킨다. 세련된 취향과 권위를 지닌 골동품들이 비교적 가까운 과거의 괴기스러운 고물과 만난다.

전시의 중심 작품인 Figurine Peddler(2025)는 다소 모호한 배경 앞에 여러 색으로 채색된 조각상을 든 남성을 묘사한다. 두 대상의 크기를 감안할 때 나이가 들어 보이는 남성은 행상이고 손에 든 조각상을 거래하려는 듯하다. 조각상은 행상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는데 조각상이 매력적인 젊은 남성으로 묘사된 반면 행상은 덜 매력적인 외모이다. 남성이 조각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물건을 누군가에게 내보이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남성의 자연스러운 피부색만 보면 조각상 행상이라는 제목이 납득되지만 시어러의 손 표현은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남성의 손과 조각상의 얼굴에 동일하게 칠해진 밝은 노란색은 두 대상이 같은 세계에 속하거나 한쪽이 다른 쪽을 오염시켜 피그말리온 신화를 역전시킨 상황, 즉 조각상이 오히려 인간처럼 보이는 상황을 야기한다. 어쩌면 그 손은 애초에 남성의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나이 든 남성의 사색적이고 의문스러운 표정이 모호함을 가중시킨다. 그는 생각에 잠긴 듯 보이지만 시선이 온전히 조각상에 고정되지 않아 마네킹 같은 인상을 준다. 반면 조각상은 관람자를 정면으로 응시하여 묘한 생동감을 발산한다.

그림을 창문으로 보게 하는 착시는 캔버스 상단을 가로지르는 트롱프뢰유 커튼봉의 등장으로 무너진다. 이 지점부터 작품은 사실적 요소에서 점차 양식화된 표현으로 전환된다. 커튼의 주름은 아래쪽 산맥을 연상시키고 위쪽 하늘은 마치 나무를 깎거나 종이를 접어 만든 듯한 환상적인 조형 형태로 변모한다. 초현실주의적 요소가 작품 전반에 존재하며 특히 하단에서 두드러진다. 의인화된 구름 뒤로 양식화된 태양이 떠오르는 이미지는 작품에 몽환적이고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더한다.

진열장이나 재고 목록 카탈로그 같은 성격을 동시에 지닌 Womba Loom(2017)은 이번 전시의 다른 작품들과 뚜렷한 형식적 대비를 이룬다. 작품의 중심에는 시어러가 2000년대 초반 양모 페티시 웹사이트에서 수집한 이미지 아카이브가 자리한다. 그는 우편 주문 카탈로그의 상업 사진과 아마추어 사진가들이 촬영한 노골적인 이미지를 교차 배치하여 신체 부위나 생식기를 연상시키는 양모 수공예 아카이브를 확장한다. 시어러가 양모 아카이브를 프린트 작품으로 전환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페티시 이미지 속 특색 없는 신체나 과장된 가슴을 지닌 인물들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같은 선사시대 비너스 조각상을 연상시킨다는 깨달음이었다.

# GALERIE EVA PRESENHUBER

Archive 작품들을 이미지의 형식주의적 직조로 본다면 양모 수공예 이미지들은 패치워크 속의 또 다른 패치워크로 볼 수 있다. Archive 는 마치 디지털 모자이크 같다. 시어러는 서로 다른 대상을 인접하게 배치함으로써 형태적·서사적 울림을 극대화한다. 그가 이런 이미지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유사 사회학적' 혹은 '유사 인류학적'이라 부르는 이유는 비위계적인 배열이 예상치 못한 연결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Womba Loom 은 양모와 풍만한 형상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 매혹을 반영하는 동시에 초크 드로잉과의 근접성이라는 측면에서 두드러진 모티프가 있다. 바로 가면과 얼굴 가리개이다. 니트 담요로 몸을 감싼 인물, 표정을 확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바라클라바, 괴물처럼 보이는 공예품 등 생물형태적 머리 장식이 작품 곳곳에 등장한다.

Womba Loom 이 여성 형상과 그들의 사회적 역할 및 속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초크 드로잉은 머리장식과 얼굴 문양이 두드러진 남성 형상을 조각상처럼 전면에 내세운다. 시어러는 비교적 새로운 기법과 형식을 도입하여 초크 연필 특유의 톡톡 튀는 움직임을 살렸다. 결과적으로 이전 작업보다 짧고 덜 유려한 선으로 이루어진 간결한 묘사가 주름지고 거친 얼굴의 질감을 더욱 부각한다.

일부 드로잉은 가발이나 토가를 닮은 움푹한 뒤통과 공허한 눈이 고전 흉상을 연상시킨다. 다른 작품들은 얼굴에 페인트를 칠하고 눈 모양 문양이 있는 머리장식을 두른 모습이 신화나 종교의 인물을 암시한다. 짐승 가죽을 연상시키는 머리장식은 얼굴을 가려서 정확한 판독을 어렵게 한다. 제목은 저마다 '신뢰할 수 없음'의 기운을 풍기며 핏진성과 품위를 인위성과 기만과 대비시킨 가면의 존재를 강조한다. 시어러는 고대 철학자를 조각상으로 기념해 온 전통을 참조하면서 록 음악사에서 아이코닉한 분장의 한 장면을 가져온다. 철학자가 실은 겉모습만 그럴듯한 인물이라면, 무대 위 쇼맨이 진정한 사면일 수도 있다. 물론, 아닐 수도 있다.

이처럼 <Wools and Effigies>의 작품들은 인물을 하나의 대상이자 인공물로 바라보는 공통된 시선을 드러낸다. 형상과 조각상 사이의 모호한 관계, 페티시화된 형상들로 구성된 아카이브의 모자이크, 조각상 같은 머리를 그린 드로잉이 서로 교차하면서 정체성, 표현, 생물과 무생물 사이의 투과적 경계를 성찰한다.

스티븐 시어러(1968 년 캐나다 뉴웨스트민스터 출생)는 밴쿠버를 기반으로 활동한다. 20 여 년 동안 프린트, 조각, 회화, 드로잉, 파운드 포토그래피 콜라주 등 다양한 매체로 작업해 왔다. 특히 실내 공간에 배치한 인물을 그린 탁월한 인물화로 주목받았는데, 이 작품들은 과거의 음악 서브컬처와 미술사 속 인물을 연상시키며 야수파와 상징주의부터 독일 낭만주의에 이르는 폭넓은 양식을 참조한다. 시어러는 르네상스 원근법 체계를 재구성하여 화면에 복합적인 공간 구조를 창조하여 관람자의 몰입을 주도한다.

개인전은 플래그아트재단(뉴욕, 2024), 에코노무 컬렉션(아테네, 2023), 브랜트 파운데이션 아트 스튜디오 센터(그리니치, 2016), 찰스 리바 컬렉션(런던, 2015), 제 54 회 베니스 비엔날레 캐나다관(베니스, 2011), MUCA 갤러리-멕시코 국립예술과학대학 미술관(멕시코시티, 2008), 뉴뮤지엄(뉴욕, 2008), 드 아펠 아트센터(암스테르담, 2007) 등에서 개최되었다. 시어러의 작품은 아이슈티 재단(베이루트), 베일리 컬렉션(토론토), 브랜트 재단(그리니치), 버거 컬렉션(스위스/홍콩), 엘립스 재단(리스본), 루이비통 재단(파리), 쿤스트하우스 취리히, 런던 리저널 뮤지엄(캐나다 런던), 몬트리올 미술관, 앤티워프 현대미술관, 로스앤젤레스 현대미술관, 캐나다 국립미술관(오타와), 피노 컬렉션(파리), 루벨 패밀리 컬렉션(마이애미), 링기어 컬렉션(취리히), 밴쿠버 아트 갤러리 등 여러 공공 및 기관 컬렉션에 소장되어 있다.

작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onlinesales@presenhuber.com](mailto:onlinesales@presenhuber.com) 로 언론 보도를 위한 사진자료 및 정보 요청은 [press@presenhuber.com](mailto:press@presenhuber.com) 및 서지은 대표([j.seo@jes-pr.com](mailto:j.seo@jes-pr.com))에게 문의 바랍니다.